

圖書館學 教育의 比較研究*

—韓國과 日本의 教科課程分析을 中心으로—

權 恩 璟*

〈目 次〉

- | | |
|----------------------|---------------------|
| I. 序 | 2. 日本 圖書館學教育 基準의 改訂 |
| II. 日本의 圖書館學教育 | III. 韓國 圖書館學教育의 推移 |
| 1. 慶應義塾大學 圖書館學教育의 推移 | IV. 圖書館學 教育의 改訂方向 |
| | V. 結 語 |

I. 序

美國의 圖書館學教育은 1924年 Williamson 報告이후 ALA 에 의해 教育基準이 制定됨으로써 비로소 階級에 올라섰다 하겠다. 이 教育基準은 몇차례의 改訂을 거듭하면서 量的인 面에서 質的인 面으로 점차 改善되기는 하였으나 專門的知識 技術習得을 위한 實務中心의 教育이 여전히 主流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各館種의 發達狀況에 따라 그 業務內容을 反映하는 科目이 追加開設되었다고 할 수 있다. 換言하면 初期의 圖書館學 教育은 公共圖書館의 實務를 수행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케하는 教科課程이 널리 採用되었으며, 그 후 社會的 要請에 따라 專門圖書館이 發達되고 또한 그 重要性이 認識됨으로써 專門圖書館志向의 科目이 追加되어 교과과정의 充實을 꾀하게 되었다.

한편 Communication 技術의 놀라운 발전과 情報量의 急速한 增加, Com-

* 圖書館學 또는 圖書館·情報學

** 啓明實業專門大學 圖書館學科.

puter 利用上의 技術革新 및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情報流通機構를 갖는 社會的發展 등에 따른 情報科學의 發達로 인하여 60年代 이후의 圖書館學 教育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64年 Pittsburgh 대학이 ALA 認可學校로서 最初로 校名을 圖書館學에서 圖書館·情報學(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으로 變更한 것을 시작으로 78년에는 ALA 認可學校의 30%가 넘는 學校가 校名에 'Information'이라 用語를 첨가하기에 이르렀다.⁽¹⁾ 이러한 學校名의 變更은 미국 圖書館學關係者의 意識이 서서히 圖書館學으로부터 圖書館·情報學으로 변질 移行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수 있다.

學科 創設當時부터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약 1세기에 걸친 미국의 上述 변천과정을 불과 20여년만에 거의 그대로 踏襲하고 있다는 점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래서 미국식 圖書館學教育에서 脫皮하여 우리나라 대로의 文化的·社會的樣相에 알맞는 教育의 理論 및 實際에 적합한 教育內容으로 再構成해야 한다는 점이 미처 解決되기도 도전에 또 다시 世界的인 趨勢에 따라 情報科學이 導入되기에 이르렀다.

1970年代부터 교과과정에 本格的으로 反映되기 시작한 情報學은 그 學問自體의 性格糾明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圖書館學과 關係정립 및 교과과정 構成 상 기존의 도서관학과 어떻게 調和시킬 것인가하는 點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본 論文에서는 우리나라 圖書館學科의 교과과정 변천에 관하여 고찰하고 情報學 導入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重點적으로 分析 檢討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문제를 檢討함에 앞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時代 및 社會的 與件下에서 圖書館學을 導入하여 發展시킨 日本의 경우를 檢討하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日本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學部課程에서 圖書館學을 教授하면서 70年代 이후 獨自的인 「圖書館·情報學」 教科課程을 發展시켰다. 이러한 日本의 교과

(1) 高山正也等, 圖書館·情報學教育關係 資料の分析,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 18, 1980, p. 10-11.

과정과의 比較研究는 우리가 志向해야 할 圖書館學 教育의 目標設定에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II. 日本의 圖書館學 教育

日本에서 圖書館學이 正規의 大學教育속에 位置하게 된 것은 2次大戰以後의 일이다. 물론 戰前의 日本大學에 圖書館學講義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和田萬吉가 1918년부터 東京帝國大學文科大學에서, 1922년부터는 東洋大學에서 「圖書館管理」「書誌學」「圖書館史」「司書學」 등의 강의를 하였으니 이것이 日本大學教育에 있어서의 圖書館學教育의 始祖라 하겠다.⁽²⁾

그러나 이것은 大學教育속에 圖書館學에 관한 것이 모습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重要한 意義를 지니지만 1923年 和田氏의 退職과 더불어 이들 강의는 없어지고 말았다.⁽³⁾

2次大戰後 圖書館學教育이 大學教育속에 자리하게 된 것은 1950年 4月の 圖書館法公布에 의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同法 第5條에 司書의 資格을 規定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5年 以內에 최저 15학점을 履修한 圖書館員이 적어도 3,000내지 4,000명은 必要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日本圖書館教育에 큰 刺戟劑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1950年에서 51년에 걸쳐 日本大學, 東洋大學, 天理大學 등에서 圖書館學講座를 開設하였다. 그러나 本格的인 圖書館學教育은 慶應義塾大學文學部 圖書館學科의 設立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렇게 大學教育속에 도서관학이 導入됨에 따라 1954年에 大學基準協會는 「圖書館學教育基準」을 制定 發表하였다.

本章에서는 日本의 圖書館學教育을 상징하고 있는 慶應義塾大學圖書館·情報學科의 教科課程 變遷과 대학기준협회의 「圖書館學教育基準」의 改訂을 살펴봄으로써 日本의 圖書館學教育을 概括 檢討코자 한다.

(2) 小倉綱雄, 大學における圖書館學教育, 圖書館雜誌, Vol. 56, No. 7, 1962, p. 313.

藤川正信編, 圖書館學教育の本質的諸問題, 一圖書館教育セミナー—, 圖書館界, Vol. 18, No. 5, 1967, p. 150.

(3) 小倉 Ibid.

1. 慶應義塾大學 圖書館學 教育의 推移

2次大戰後 日本의 圖書館事業의 發達は 美占領軍의 圖書館施策下에 展開된 점에 특색이 있다. 圖書館學教育도 그 例外는 아니어서 圖書館協會의 설립, 圖書館法의 制定과 더불어서 美占領軍이 펴한 圖書館 3大改革中 하나였다.

1950年 6月, 圖書館學校를 設立하기 위해 Illinois 大學의 R. B. Downs 가 來日하여 學校의 目的, 教育內容, 設置學校,⁽⁴⁾ 教育期間, 敎員, 施設等에 關係 多面인 事前檢討를 하였다.⁽⁵⁾ Downs의 報告를 바탕으로 ALA는 設立 豫定의 圖書館學校의 責任者로 當時 Washington 大學 圖書館學校의 主任인 R. L. Gitler 를 選任하였다. 來日한 Gitler는 最終的으로 圖書館學校를 慶應 大學에 設置하기로 決定하였으며, 이하하여 1951년에 日本 初有의 獨立된 圖書館學科가 設立되었다. 當時 慶應義塾大學 日本圖書館學校(Japan Library School)라 불리웠던 이 學校는 一個私立大學의 한 學科라기보다 日本圖書館學教育의 Center로서의 役割을 標榜하고 있었다. 敎授陣은 主任인 Gitler의 外에 Columbia 大學의 B. M. Frick, George Peabody 大學의 F. N. Cheney와 Western Reserve 大學, 美議會圖書館, Hawaii 地區圖書館에서 派遣된 Visiting Faculty로 構成되었다.⁽⁶⁾

全員이 美國인으로 構成된 初期의 Visiting Faculty는 1年을 任期로 交代하는 한편 年次計劃下에 日本人 敎授와 Staff를 養成·代替하였다.⁽⁷⁾ 그리하여 1956年 6年間 學科運營을 맡아오던 Gitler가 임기만료로 귀국함으로써 全員日本人의 敎授陣이 構成되었다. 初期 慶應大學 圖書館學科의 發展은 이러한 美國인 Faculty의 大學內外에 있어서의 열성적인 活動과 年次주도한 日本人敎授의 養成, 이를 뒷받침한 美國의 財政的 援助로 이루어졌다하

(4) 設立對象學校로는 國立의 京都, 東京大學과 私立의 慶應, 早稻田, 同志社大學이 마지막까지 考慮되었으려, 學部課程이 없는 大學院設置가 不可能하다는 理由로 學部에 設置하도록 되었다.

(5) 澤本孝久, 慶應義塾大學圖書館·情報學科, その過去, 現在, 未來,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 9, 1971, p. 12.

(6) ロバート・ローレンス・ギットラ, ジャパン・ライブラリー・スクール, 圖書館雜誌, Vol. 45, No. 3, 1951, p. 2.

(7) 橋本孝, 圖書館學科 創設 15周年을 迎えて, *Library Science*, No. 4, 1966, p. vii.

했다.

創設 이래 6년간 미국인 主任教授에 의해 經營되어 온 慶應大學圖書館學科의 教科課程은 거의 순수한 미국식 圖書館學의 形態로서 傳授되었다. 즉 ALA 인가 학교의 그것과 거의 같이 構成되었으며⁽⁸⁾ 약 10년 동안 큰 變化없이 持續되었다. 당시 미국의 도서관학교육은 公共圖書館의 實務를 크게 反映한 公共圖書館員 養成을 위한 教科課程을 널리 採用하고 있었는데 慶應大學 역시 이를 크게 反映하여 公共圖書館 志向의 교과과정이 먼저 採用되었다. 1951년에 開設된 講座는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圖書館奉仕, 圖書館의 經營 및 管理, 目錄法 및 分類法, 調査를 위한 參考圖書 및 書誌學資料(和洋), 圖書選擇, 學校圖書館, 兒童圖書館, 視聽覺資料, 農漁村圖書館施設, 圖書 및 圖書館史, 兒童文學 및 童話⁽⁹⁾ 등이다. 이렇게 미국의 圖書館學教育을 規範으로 한 直輸入의 교과과정이 採擇되었지만 이것은 戰後의 公共圖書館運動高揚의 무드에 呼應하여 큰 成果를 거둘 수 있었다.⁽¹⁰⁾ 慶應大學은 이처럼 公共圖書館 志向의 교과과정을 基調로 하는 諸科目의 內容에 각 時代의 要求를 反映시키면서 改訂을 거듭하게 되었다.

〈表 1〉에서 1951年 이후의 교과과정 推移를 概括해보면 1956년까지는 公共圖書館志向의 教科科目이 主流을 이루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公共圖書館의 主要機能 및 이를 위한 基礎科目으로 構成되었다. 公共圖書館志向이 아닌 과목으로는 「學校圖書館과 그 經營」 「圖書館學教育·圖書館學校 및 그 學問」뿐이다.

1957년부터 1961년까지의 교과과정은 科目名稱이 많이 바뀌었으나 이는 이제까지의 直譯的인 科目名을 벗어나려는 意圖로 內容의 變化는 거의 없었다.⁽¹¹⁾ 눈에 띄는 변화는 「圖書選擇 讀書相談」이 選擇에서 必須科目으로 바뀐 것 뿐이다.

(8) 中村則雄, 慶應義塾日本圖書館學校를 認識せと, 圖書館雜誌, Vol. 48, No. 11, 1954, p. 3.

(9) 로버트·ローレン스·キットラ, op. cit., p. 2.

(10) 長澤雅男, 圖書館·情報學의 教育,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 10, 1972, p. 3.

(11) Ibid.

本格的인 敎科課程의 改訂은 創立 10週年을 맞이한 61년에 시작되어 62년에 實施되었다. 同改訂은 61년에 學科自體의 第2次 5個年計劃이 完了되어 敎授陣이 強化됨에 따라 日本內의 社會的 要求를 크게 反映하여 지금까지의 미국식 圖書館學科의 經營方式을 벗어나서 日本의 諸般條件에 適合한 敎과과정을 編成하였다는 점에서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科目의 改稱은 물론이고 新設·廢止科目도 현저하여, 「社會敎育과 圖書館」 「圖書館, 館外活動」을 廢止하여 公共圖書館志向을 벗어나게 되었으며 大學圖書館 및 專門圖書館관계의 과목을 多數 新設하였다. 특히 「專門圖書館資料」 「資料組織特殊」 「專門圖書館」 등을 新設함으로써 專門圖書館관계 과목의 充實을 기하고 있다. 이는 專門圖書館의 發展 및 그 重要性에 대한 社會的 認識이 增大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圖書館學敎育에 대한 專門圖書館 現場으로부터의 強力한 要求가 反映된 結果라 할 수 있겠다. (12)

參考資料調查法 I, II 가 「資料情報調查」와 「人文科學資料」 「社會科學資料」 「科學技術資料」로 分離된 것과 圖書館組織管理가 館種別로 나뉘게 된 것 역시 위와 같은 觀點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1967년에 大學院文學 研究科에 圖書館·情報學專攻 석사과정이 設置되었고, 1968년에는 學部 역시 情報學側面에서의 接近을 強化하여 學科의 名稱을 圖書館·情報學科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表面에 나타나는 敎科構成上的 뚜렷한 變化는 찾아볼 수 없고 科目名에 變化가 있었으니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圖書館學概說」은 「圖書館·情報學概說」로 「資料情報調查」가 「參考調查資料」와 「參考調查法」으로 나뉘어 前者에서는 資料의 特性 評價문제들, 後者에서는 奉仕문제들 다루게 되었다. 資料組織部門에서는 選擇의 「資料組織論特殊」가 「情報檢索論」으로 바뀌어 必須科目이 되었으며 「圖書館經營學」은 「情報 System 論」으로, 各館種別圖書館은 「圖書館·情報 System 管理」란 名稱下에 一括되었다.

(12) 1961, 62년부터 專門圖書館, 科學技術分野의 情報機關으로부터 卒業生要請이 늘어났으며(澤本 op. cit., p. 13-16), 1961년의 圖書館大會에서는 專門圖書館志向의 圖書館員을 養成하라는 強力한 要請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創設以後 20년에 걸친 敎科課程의 推移에서 慶應大學에서 미국圖書館學敎育의 趨勢와 마찬가지로 公共圖書館中心의 圖書館實務敎育에서 점차 各館種의 專門인 문제를 理論적으로 檢討하려는 傾向이 강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차례의 改訂에도 불구하고 情報利用者の 끊임없이 變하는 要求와 日本內의 技術發展 때문에 다시 改訂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敎科課程全體에 대한 根本인 檢討를 거치지 않고 實務적으로 有用하다는 理由로 必要科目을 追加하는 것만으로는 敎科課程의 혼돈을 초래할 뿐이라는 自體內의 反省도 있었다.⁽¹³⁾ 이러한 反省을 基礎로 1969년부터 3年間に 걸친 改訂作業이 시작되었다. 同改訂作業에서는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本質 및 關係를 明確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學問을 적절하게 融合調和하여 「圖書館·情報學」의 敎育內容을 再構成하고 敎科課程構造에 根本인 改編을 단행한데에 그 重要性이 있다.⁽¹⁴⁾

즉 圖書館·情報學은 情報 System에 있어서의 情報處理過程을 研究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情報의 生産—記錄—收集—蓄積—檢索—配布—利用의 일련의 過程이 研究對象이 된다. 이 過程은 機能에 따라 生産, 記錄의 資料系列, 收集에서 蓄積까지의 組織系列, 檢索, 配布, 利用過程을 中心으로하는 探索系列로 區分되며, 이러한 全過程을 subsystem으로 하는 圖書館을 總體的으로 다룰 system系列이 必要하다⁽¹⁵⁾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圖書館·情報學의 敎育內容은 資料系列, 組織系列, 探索系列, System系列과 이상의 系列을 綜合的體系의으로 連結 調整할 基礎科目群으로 構成되었다.

그러나 위의 科目系列은 理論的인 根據에 의해 形成된 것으로 圖書館이라는 現場을 가지는 實踐科學으로서의 敎育內容으로서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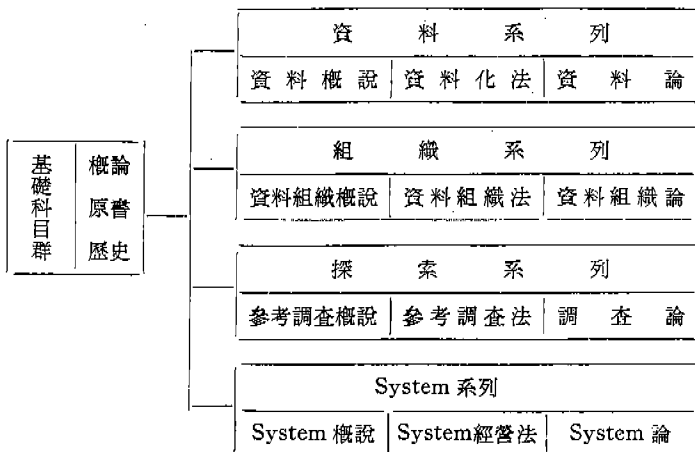
(13) Sawamoto, Takahisa, Revisions of Curricula and New Ph. D Program at th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eio University: A Progress Repor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13, 1975, p.249.

(14) 慶應大學이 採擇한 「圖書館·情報學」理論에 관해서는 本論文의 第4章을 參考하시오.

(15) 長澤, op. cit., p.7.

澤木, Ibid., p.249-250.

〈그림 1〉 慶應大學 圖書館·情報學科目構成一覽



다. 즉 資料系列과 探索系列은 理論의으로는 分離가 可能하지만 現場으로서의 圖書館이 未發達한 日本의 경우 探索系列을 獨白의으로 成立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6)

1972年의 改訂에서는 편의상 이 두계열을 合하여 最終的으로 〈그림1〉과 같은 基本構造가 確立되었다. (17)

이 教科課程의 主要目的은 2·3학년에서 必須科目을 모두 이수하게 하며, 특히 2학년에서 基礎的이고 一般的인 入門科目을 이수시켜 圖書館·情報學科目系列의 outline과 相互關係를 理解할 수있도록하며, 3학년에서 充分한 實習經驗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고 구체적으로 圖書館의 諸問題를 理解하게 하며 4학년에게는 圖書館·情報學의 문제에 關係 思考研究할 수 있는 充分한 時間을 提供한다는 것이다. (18) 이상의 教科課程에 의하면 基本的인 教育目標 뿐만아니라 學年에 따른 年次的인 教育目標가 確實하게 수립되어 있음을 看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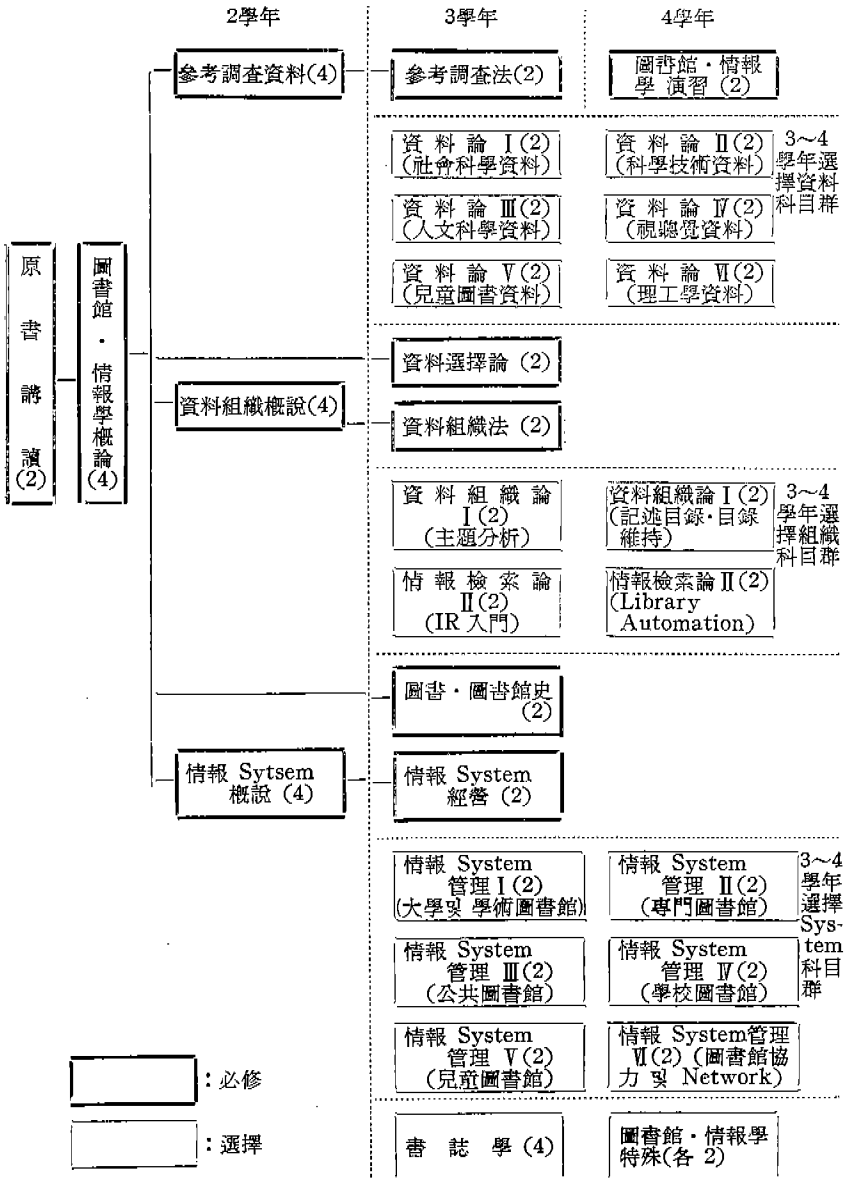
(16) 澤本, Ibid., p.249.

(17) 長澤, op. cit., p.12.

圖書館情報學科カリキュラム委員會, 慶應義塾大學 圖書館·情報學科 のカリキュラム의 現狀,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11, 1973, p.1-62.

(18) 澤本, op. cit., p.252-253.

〈그림 2〉 慶應大學 圖書館·情報學科目 系列圖



☐ : 必修

☐ : 選擇

1972년에 改訂된 上記 교과과정은 3·4학년의 선택 과목으로 「書誌學」(4) 이 追加된 외에 거의 變更없이 오늘날까지 施行되고 있다. 이는 改訂當時 限定된 學科目名을 피하고, 各系列別 科目構成을 一般的理論에서 細部の 專門의 問題에 이르기까지 「…概說」 「…法」 「…論」으로 統一하여 科目名의 改訂에 따르는 번거로움없이 社會的 要請의 變化에 卽應할 수 있는 內容을 講義할 수 있도록 한 配慮의 結果라 하겠다.

2. 日本 圖書館學教育基準의 改訂

2次大戰後 日本의 正規大學教育에 司書養成을 目的으로 圖書館學 講座가 開設됨에 따라 1954年 大學基準協會는 「圖書館學教育基準」을 制定하였다. 同基準은 77年改訂되기까지 20여년간 圖書館學敎科課程을 規定하고 圖書館學教育 및 圖書館員養成基準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同基準은 制定當時의 學問體系, 社會的 狀況을 反映한 것으로 그 當時에는 나름대로의 役割을 達成했다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學術, 文化, 社會的 要請에는 適應할 수 없는 면이 顯著하게 되었다.⁽¹⁹⁾ 이러한 理由로 77年에 「圖書館·情報學教育基準」이 새로이 制定되었다.

그러나 現實적으로는 76年에 圖書館學에 관한 科目을 開講하고 있는 대학은 232校에 달하고 있으나, 舊基準인 「圖書館學教育基準」을 達成하고 있는 大學은 겨우 3個校뿐 이었다.⁽²⁰⁾ 이러한 狀況下에서 새로이 發生한 情報分野를 導入하기 위한 改訂이 必要한 가에 대하여 많은 論難과 批判이 있었다.⁽²¹⁾

「圖書館·情報學教育基準」은 現在로서는 그 뜻하는 바 대로 國家的인 水準에서 圖書館·情報學教育 및 敎科課程을 規定하지는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앞으로 設立될 圖書館學科 및 圖書館學部에는 同基準이 適用될 것이며, 또한 將次의 日本圖書館學의 性格規定 및 교과과정 作成에 있어 指針

(19) 高山正也等, op. cit., p. 3.

(20) 3個校란 慶應大學, 國立圖書館短期大學(現 圖書館情報大學), 東洋大學을 말한다. 이러한 圖書館學教育制度의 未發達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現在 新基準에 合當한 大學은 慶應大學과 國立圖書館情報大學의 2個校 뿐이다.

(21) JLA 圖書館學教育部會, 第8回圖書館學教育部會研究集會의 報告, 圖書館雜誌, Vol. 70, No. 12, 1976, p. 500.

〈表 2〉 日本「圖書館學教育基準」 및 「圖書館·情報學教育基準」

圖書館學 教育基準 (1954)

I. 專攻科目

- 1) 基礎部門 6學點 以上
(圖書館學概論, communication 과 圖書館, 靑少年과 圖書館, 圖書館史 等)
- 2) 資料部門 8學點 以上
(圖書選擇法, 調查 및 書誌의 資料, 讀書와 그 資料, 視聽學資料 等)
- 3) 整理部門 8學點以上
(圖書目錄法, 圖書分類法 等)
- 4) 管理部門 6學點以上
(圖書館組織, 經營, 圖書館施設, 建築, 圖書館對外活動 等)
· 實習·演習은 반드시 行할 것.
· 專攻科目은 各部門을 通하여 合計 38學點以上 履修한 것.

II. 關連科目은 널리 人文, 社會, 自然, 應用科學의 諸科目에서 選擇 設定한다.

圖書館·情報學 教育 基準 (1977)

I. 專攻科目

- 1) 基礎部門(6學點以上) : 必要에 따라 演習을 行할 것
(圖書館·情報學概論, 圖書館史, 社會와 圖書館, 學術의 發達·普及와 圖書館 等)
- 2) Media·利用部門(8學點以上) : 반드시 實習 또는 演習을 行할 것.
(情報 media 論, 參考調查資料論, 參考調查演習, 情報要求調查論 等)
- 3) (情報組織部門(8學點以上) : 반드시 實習 또는 演習을 行할 것.
(情報組織論, 分類·目錄法, 情報檢索, 情報流通技術論 等)
- 4) 情報 System 部門(8學點以上) : 반드시 實習 또는 演習을 行할 것
(情報 system 論, 情報 system 管理, 建築, 圖書館機械化論 等)
· 圖書館·情報學實習(2學點以上)은 반드시 行할 것.
· 專攻科目은 實習을 包含하여 各部門에 걸쳐 38學點以上 履修할 것.

II. 關連科目은 널리 人文, 社會, 自然, 應用的 諸科學에서 選擇 履修하게 한다.
(哲學, 論理學, 言語學, 教育學, 社會學, 經營學, 數學, 自然科學通論, 生理學, 心理學 情報工學 等)

이 된다는 意味에 있어서는 現在로서도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同基準은 圖書館·情報學教育에 대한 日本同學界의 總意라는 점에서 前述의 慶應大學教科課程과 아울러 檢討함으로써 日本 圖書館學教育의 變化와 圖書館·情報學의 全貌를 파악할 수 있다.

1954년에 制定된 「圖書館學教育基準」의 專攻科目의 構成은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基礎部門, 資料部門, 整理部門, 管理部門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이 4部門의 構成은 그 底邊에 保存·奉仕의 基盤이 되는 圖書館이란 建物이 概念이 潛在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圖書館現場의 實務를 中心으로 한 教育內容이라 할 수 있으며 當時의 圖書館 業務의 現實을 생각하면 妥當한 區分이었다 하겠다.

다음에 改訂된 「圖書館·情報學教育基準」에서 意味하는 圖書館·情報學의 概念과 基準內容을 要約한다.⁽²²⁾

圖書館學은 人間의 知的·情緒의 活動의 所産인 各種記錄資料를 目的的·系統的으로 收集·組織·保管하여 利用에 提供하기 위한 體系의 知識이며, 이 目的을 위해 開發된 應用技術의 總體이다. 한편 通信工學, 計算機工學 및 Documentation 과 같은 諸技術의 開發·發展에 의해 發生한 情報學은 情報의 本質, 情報行動, 情報의 流通에 影響을 끼치는 諸要因과 가장 效果的인 情報利用을 目的으로 한 情報處理의 手段·方法등에 關係 研究하는 學問領域이다. 圖書館에서 規定한 「各種記錄資料」는 情報源의 하나이며 各種記錄資料를 「系統的으로 收集·組織·保管하여 利用에 提供」하는 手段, 方法 역시 情報學에서 말하는 「情報의 壓縮·變換·傳達」의 문제와 밀접한 關係가 있다. 따라서 從來의 圖書館學과 새로운 情報學과는 그 基礎的 研究對象이 共通할 뿐 아니라 各種 處理方法·手段등의 技術의 分野에 있어서도 相互 影響을 미치는 關係에 있다. 이 兩者를 合體融合한 새로운 學問영역을 「圖書館·情報學」이라 한다. 이 學問은 理論的인 面에서는 數學·言語學·論理學·生理學·心理學등에 基礎를 두는 한편 應用面에서는 電子計算機技術, 印寫技術, 通信

(22) 日本大學基準協會, 圖書館·情報學分科會 圖書館·情報學教育의 實施方法 について(案), 別刷, 1976, p. 2-4.

技術, 經營管理技術 등의 成果를 活用한다.

基準改訂委員會는 上記와 같이 圖書館·情報學의 領域을 明確히 하고, 理論的인 部門構成을 追究하는 한편 現實的으로 專攻教育課程을 編成하는 경우 科目 配當을 하기 쉽도록 하려는 配慮로 다음과 같은 4部門으로 專攻科目을 構成했다.

첫째로 「基礎部門」을 두어 圖書館·情報學의 理論을 다룬다.

둘째로 「메디아·利用部門」을 두어 人間이 活用할 수 있는 情報媒體類型의 全體像을 把握시킨 다음 記錄情報에 主眼點을 두고 그 特徵, 利用法 및 情報 需給 등에 관해 다룬다.

셋째로 「情報組織部門」에서는 情報利用을 위한 流通技術 및 그를 위한 媒體組織·處理法을 다룬다. 따라서 종래의 分類法 目錄法의 媒體의 技術의 處理를 비롯하여 情報檢索을 위한 方法, 技術 및 情報의 壓縮·變換·合成 등의 情報作成方法 등도 포함한다.

넷째는 「情報 System 部門」으로 情報需要에 對應하는 全過程을 System 으로 把握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²³⁾

各部門別로 設置할 수 있는 具體的인 科目은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例示된 科目은 어디까지나 例示에 지나지 않으므로 各大學은 그들의 教育計劃에 따라 科目의 取捨選擇內容의 分離, 統合, 移動이 가능하다.⁽²⁴⁾ 따라서 新基準의 部門構成 및 例示科目으로 同基準이 專門圖書館 및 情報 Center 志向的인 것으로 보이지만, 公共圖書館志向의 教科課程을 원한다면 基準의 4)에 公共圖書管理에 관한 科目을 넣고 2)에서 公共圖書館的인 資料를 重點的으로 다루도록 內容을 編成할 수 있다.

教科課程 適用範圍의 彈力性의에도 新基準에 있어서의 變化로 情報 system 部門의 強化와 關連科目이 擴張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중에는 情報學의 理論을 뒷받침할 수 있는 論理學, 言語學, 數學, 情報工學 등이 포함되어 있다.

(23) Ibid., p. 9.

(24) Ibid., p. 10.

新·舊基準을 總括比較하면 舊基準이 圖書館現場에서 要求되는 實際的인 業務를 中心으로 그 技術을 習得시키기에 適合한 技術教育中心의 教科內容이 있음에 비하여 新基準은 圖書館의 모든 現象을 情報學의 基礎的理論과 技術의 成果를 根據로 體系의 體系으로 理解, 適用, 發展시키기 위한 理論과 實際가 兼備된 教科內容이라 하겠다.

本章에서 살펴본 慶應大學의 72年改訂 以後의 「圖書館·情報學」 教育內容과 大學基準協會의 「圖書館·情報學教育基準」은 構成內容의 比重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學問性格의 糾明에 있어서는, 教育內容의 體系 및 그에 따른 部門構成에 있어서는 거의 同一한 것이다. 그것은 慶應大學의 教科課程이 5年後에 改訂된 新基準에 큰 影響을 끼쳤기 때문에 이해된다. 서로간에 어떠한 影響이 作用되었던지간에 前述한 兩教育內容은 넓게는 國家次元에서의 總意를 획득하였다는 점에서 重要的 意味를 갖는다.

Ⅲ. 韓國 圖書館學教育의 推移

本章에서는 資料의 入手⁽²⁵⁾가 比較的 容易하였으며, 圖書館學의 導入時期가 오래된 延世大學校 梨花女子大學校 및 中央大學校의 教科課程을 分析 檢討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專攻科目은 日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基礎, 資料·利用, 資料組織, 管理(System)系列로 4區分하였다. 그리고 英書, 日書 및 漢書講讀중 英書講讀은 그 性格上 圖書館學의 基本理論 및 概念을 理解하기 위한 textbook을 읽힌다는 意味에서 基礎系列에 포함시키고 日書, 漢書講讀은 關連科目으로 간주하여 本檢討에서는 제외하였다.

延世大學校

延世大學校의 教科課程變遷을 <表 3>에서 살펴보면,

基礎系列: 概論과 歷史를 주축으로 70年代初에 情報學이 選擇科目으로 導

(25) 3大學의 教科課程에 관한 資料中 1975年以前的 것은 1959年 以後 發表된 關係論文에서 拔萃하였다.

入되었는데 73년에는 從來의 [圖書館學과 합쳐져 「圖書館 및 情報概論」으로 바뀌었으며 80년에는 「情報圖書館學序說」로 改稱되었다. 73년이후 비록 選擇科目기는 하나 「英書講讀」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講座가 무엇을 目標로 하고 있는지 確實한 性格糾明이 先行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資料·利用系列; 61년에 「參考奉仕」가 開設되기까지는 奉仕, 利用部門은 거의 도외시되었다. 70年代에서는 「兒童圖書」가 제외되었고 主題別書誌에 있어서는 科目의 統合 分離 및 科目名의 改稱이 빈번하였으나, 資料選擇, 參考奉仕, 主題別書誌, 韓·中書誌, 非冊子資料를 주축으로 하는 講成內容에 있어서는 별다른 變化를 찾아볼 수 없다.

資料組織系列; 創設當時 分類, 目錄만으로 講成된 同系列은 61년이후 分類, 目錄, 古書 및 非圖書資料의 組織이라는 4個部門으로 講成되어 왔다. 73년에 「抄錄 및 索引法」이 開設되었으나 곧 제외되고 70年代後半부터 「Computer 情報法」을 開設함으로써 同系列에 情報學分野에 導入을 꾀하였으며 역시 70年代後半에 「目錄分類法演習」이 追加되었다.

管理系列; 組織管理一般論과 大學圖書館으로 시작된 이 分野는 61년에 各館種別圖書館管理로 分離되었으나 70年代에 들어 公共圖書館管理가 제외되었으며 70年代後半에 「圖書館自動化」가 追加開設되었다.

梨花女子大學校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基礎系列; 圖書館學概論, 圖書·印刷·圖書館史, 社會와 圖書館을 주축으로 66년에 「Documentation」을 개설함으로써 情報學分野가 導入되었다. 그러나 그 名稱은 Documentation→情報科學→Documentation 으로 10년이상 變化를 거듭하였는 바 이는 一貫性이 缺如된 듯한 인상을 준다. 이 科目은 79년이후에는 기존 「圖書館學序說」에 統合된 듯 하다.

資料·利用系列; 「參考圖書」가 63년에 「參考資料 및 參考業務」로 그 후 다시 「參考奉仕」로 바뀌어 奉仕面이 強化되었으며 圖書館과 資料(圖書選擇),

參考奉仕, 非圖書資料 및 各種書誌(文獻)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延世大學校와 마찬가지로 書誌科目의 統合, 分離외에 뚜렷한 變化는 없다. 系列化가 試圖된 73年의 科目調整에서 총 36학점의 必須科目中 50%인 18학점이 이 分野로 講成되어 異常重된 것이 特徵적이었으나 70年代後半에 再調整되어 「圖書館과 資料」「參考奉仕」「主題別書誌」「韓國典籍」이 必須로 選定되었다. 延世大學校의 경우에서와 같이 79년에 「兒童資料와 奉仕」를 제외시킴으로써 脫公共圖書館的傾向을 엿볼수 있다.

資料組織系列; 70年代初까지 分類 目錄으로만 講成되어온 同系列은 79年代後半에 「古書整理法」「文獻情報管理」가 選擇으로 80년부터는 「情報檢索」이 隔年制選擇으로 追加되었다.

管理系列; 처음부터 公共, 大學, 學校圖書館의 館種別로 管理論이 開設되었으며 뒤에 時代的 要請에 따라 特殊圖書館이 開設됨과 아울러 이들 전체를 總括한 圖書館組織管理가 開設되었다. 그러나 80년부터는 特殊圖書館을 제외한 圖書館管理科目은 奇數年에만 開設되고 역시 隔年으로 「圖書館自動化」가 開設되었다. 同系列에서도 점차 特殊圖書館 및 情報 Center 志向의인 科目을 構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中央大學校

63년에 設立된 中央大學校 圖書館科의 教科課程 역시 上記 두 大學의 경우와 類似한 樣相을 보인다. 즉 60年代末부터 情報科學에 대한 關心이 高調되기 시작하였던바 이를 反映하여 情報學關係科目을 서서히 增加시켰으며 70年代末에는 基礎系列의 圖書館學概論과 情報科學을 統合하여 「文獻情報學」으로 圖書館史는 「文獻情報史」로 改稱하였다. 한편 圖書館運營 및 行政, 學校, 公共圖書館運營으로 構成된 管理系列은 70年代後半에 「情報 System 管理論」「System 分析法」「情報 System 經營論」「情報 System 制度論」으로 同系列 全般에 情報學的 接近이 強化된 듯 보이나, 81년에는 다시 圖書館經營論 I, II 및 圖書館政策論으로, 「文獻情報學」은 「情報經濟學」으로 改稱되었다. 科

目名만으로 判斷할 때 中央大學校는 上記 두 大學보다 情報學의 導入에 보다 적극적인 듯하나 教科目에 있어서나 圖書館學의 性格糾明에 있어서는 試行錯誤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3大學의 教科課程의 變遷趨勢를 要約해 보면,

첫째로 미국과 日本이 公共圖書館志向의 教科課程에서 專門圖書館志向으로, 다시 情報學의 導入으로 바뀌어짐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學問導入의 時期가 늦어진 理由도 있으나 公共圖書館現場의 극심한 不振으로 오히려 大學圖書館志向의 教科課程이 먼저 採擇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후 60年代後半에서 70年代初期에 거의 同時에 專門圖書館과 情報學分野가 導入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社會的 要求와 圖書館現場의 發達에 따라 새로운 分野를 教科課程에 導入하기는 하였으나 그 受容態度는 소극적인 것으로 特殊圖書館管理, 情報檢索理論, Computer 情報處理法, 圖書館自動化등의 選擇科目을 增設하고, 科目名에 ‘情報’라는 단어를 採用하였을 뿐 教育內容의 構成에는 本質적인 變化가 없었다고 理解된다. 즉, 圖書館實務를 위한 技術中心의 教育에서 시작하여 情報學導入에 이르러서도 이를 發達된 技術의 適用이라는 側面에서 받아들여므로 오랫동안 論難되어 온 職業教育的인 教育內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로 科目名稱에 있어서 大學間의 統一은 말할 것도 없이 同一大學內에서도 수시로 변하고 있으며 科目의 改稱, 開設 및 廢止, 統合, 分離가 심하다.

上述한 문제점들은 圖書館學(또는 文獻情報學, 圖書館·情報學)에 대한 學問的 體系 및 領域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明確한 教育目標가 設定되지 않은 關係로 生成되는 것이라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非體系的인 變化가 궁극적으로 一定한 教育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一貫性을 缺如시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앞으로 充分히 考慮되어야 할 점으로 指摘된다.

다음에 3大學의 現行教科課程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 延世大學校 教科課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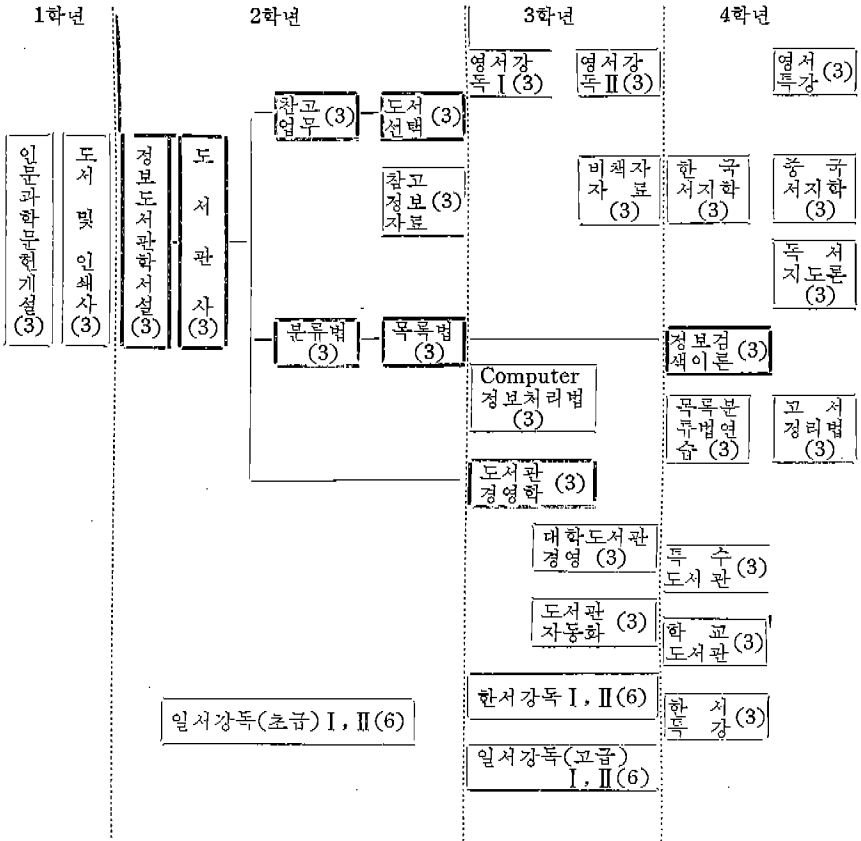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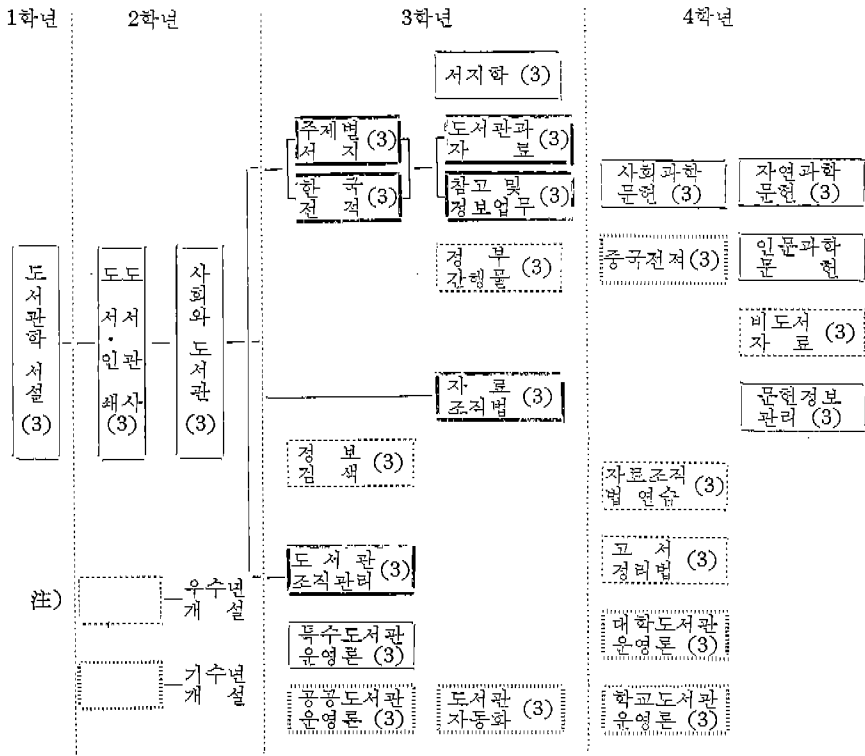


그림 3, 4, 5에서 3大學 모두가 2·3학년에서 必須科目을 3·4學年에서 選擇科目을 集中的으로 履修하도록 編成되어 있으며 한편으로 概論과 歷史科目을 1·2學年에서 履修하여 圖書館學全體를 理解하고 他科目의 履修에 基盤이 될 수 있도록 配慮하고 있다. 그러나 大學 4年間に 圖書館學에 관한 知識을 體系的으로 習得시키기 위한 教科內容의 編成과 科目間의 連繫性에 따른 學年別 配置등에 관해서는 거의 考慮되지 않은듯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分野는 資料·利用系列과 資料組織系列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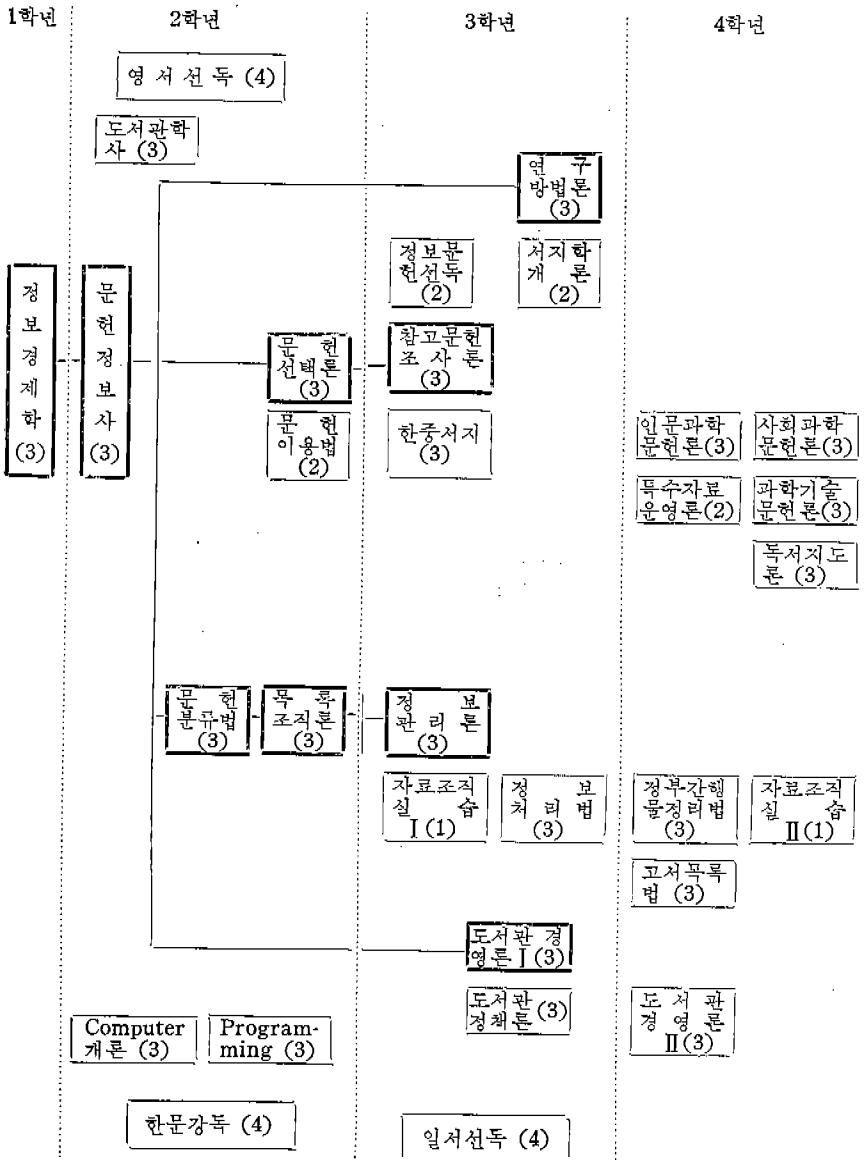
〈그림 4〉 梨花女子大學校 教科課程



延世大學校는 資料分野에 있어 他 두 대학보다 韓·中書籍에 比重을 두고 있으나 主題別叢誌가 탈락되어 있다. 中央大學校와 梨花女子大學校는 基礎系列인 叢誌學을 履修하기 전에 韓國典籍 및 韓國書誌를 履修하는 矛盾이 있으며 특히 梨大는 必須인 「主題別叢誌」「韓國典籍」과 「圖書館과 資料」「參考 및 情報業務」는 科目 配置順序가 완전히 뒤바뀐 듯하다. 즉 「圖書館과 資料」 및 「參考 및 情報業務」를 履修한 후에 「主題別叢誌」를, 그 후에 選擇인 各主題에 따른 文獻을 履修하는 것이 順序가 아닌가 생각된다.

組織系列은 傳統的인 分類, 目錄외에 情報檢索理論, (Computer)情報處理法, (文獻)情報管理論등을 開設하여 情報學의 接近을 크게 強化한듯 하지만,

<그림 5> 中央大學校 敎科課程



現代의 情報資料의 組織을 理解하고, 이를 體系的으로 計劃하기 위해서는 [傳統의 科目에 情報學關係科目을 덧붙이는 식이 아니라 同系列自體에 대한 教育內容의 再構成이 不可避하다고 본다.

따라서 前述한 教科課程의 變遷과 現行教科課程의 分析에서 判斷된 가장 시급한 문제는 圖書館學에서 다루어야 할 領域을 體系的으로 再構成하는 것과, 이를 教科課程에 어떻게 調和시킬 것인가, 그리고 具體的인 教育目標의 設定과 아울러 그것을 達成하기 위한 學年別教育目標가 確立되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Ⅳ. 圖書館學教育의 改訂方向

既存教科課程의 改訂이나 新設學科의 教科課程을 構想함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教育目標의 確立이라 하겠다. 그리고 教育目標를 確立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學問의 體系 및 領域을 明確히 함과 동시에 社會의 要求, 學生自身의 要求와 關連하여 어떠한 卒業生을 輩出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先決되어야 하겠다.

圖書館學은 現場을 갖는 實踐科學이다. 그래서 圖書館學의 學問으로서의 體系를 確立하기 위한 많은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現在까지의 教育內容은 역시 圖書館現場의 業務를 理解하고 이를 發展시키기 위한 知識과 技術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學部課程의 教育目標은 學生들에게 圖書館學의 基本原理와 理論을 가르치는 것이지 現場에서 즉시 쓰일 수 있는 技術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즉 大學教育을 통해 目錄, 分類의 專門家, 特殊分野의 參考司書, 또는 大學圖書館司書, 專門圖書館司書와 같은 特定分野의 專門家를 養成하는 것이 아니라 司書 또는 情報專門家로서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도록 必要한 基本根幹을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날 급격한 科學技術의 發達, 끊임없이 變하는 情報流通體制 및 圖書館

에 대한 利用者의 要求는 圖書館學의 教育內容과 教科課程에 많은 變化를 가져왔었다. 더우기 情報學의 導入에 있어서는 學校에 따라 또는 국가에 따라 既存圖書館學에 대한 反映程度, 教育內容 및 教育目標에 서로 相異한 見解를 표방하게 되었다.

情報學 導入 이후의 圖書館學分野의 專攻教育體系는, 첫째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理論에서 技術에 이르기까지 融合·調節된 圖書館·情報學(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둘째 圖書館學과 情報學이 並立되는 것, 셋째 圖書館學이란 名稱이래 약간의 情報學志向의 科目을 포함한 것등의 세가지 類型을 취하는 것이 世界的인 趨勢이다. 이들은 이 分野教育의 完成된 類型이라기 보다 하나의 成型을 指向하는 過程에 있어서의 流動的 過渡的인 것이 라하겠다.⁽²⁶⁾

우리나라는 3章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情報學을 發達된 技術의 適用이라는 觀點에서 導入하던 세제 類型에서 現在의 概論科目인 「情報圖書館學」「情報經濟學」에서 볼 수 있듯이 圖書館學 情報學의 完全한 調和를 꾀하는 三제 類型으로 移行해 가는 過渡期에 놓여 있다 하겠다. 이러한 移行現象은 國內外 學者들의 意見을 綜合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때 過去와 같이 社會的 諸般變化에 따라 實務的으로 有用하다는 理由로 必要한 科目을 追加하는 臨機應變의 教科課程을 止揚하고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調和된 關係, 理論을 정립하고 이를 基礎로 새로운 教科課程을 構成하는데 보다 많은 努力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作業에 있어, 圖書館學에서 다루는 모든 現象의 普遍的理論을 情報學에서 發見하고자하는 慶應大學의 「圖書館·情報學」理論에서 直接·間接으

(26) Ibid., p. 4.

(27) Ashaim, L. E., 미국에 있어서 도서관학교육 근황 및 제문제 도서관, Vol. 24, No. 5, 1969, p. 19-20.

盧玉順, 美國圖書館學教育의 새로운 方向과 우리의 教育, 國會圖書館報, Vol. 15, No. 7, 1978, p. 12-20.

崔成眞, 圖書館教育의 새 方向, 도서관, Vol. 29, No. 4, 1974, p. 6-14.

崔成眞, 圖書館學과 情報學, 圖書館學報, (中央大學圖書館學會), 제 2집, 1973, p. 77-204에 인용된 多數의 外國論文

로직적않은 示唆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래에 이를 要約 紹介하고자 한다. (28)

圖書館學은 人間的·社會的事象으로서의 圖書館現象을 客觀的으로 分析함으로써 科學的基礎를 探究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 圖書館에 있어서의 記錄 情報를 組織的으로 收集·整理·保管하고 適切한 利用을 도모하기 위해 必要한 知識 및 技術의 習得을 教育의 主要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學이 科學으로 成立하기 위해서는 科學的探究를 통해 固有의 對象概念으로서의 圖書館現象이 어떤 것인가를 우선 밝히고 確固한 方法論的 基礎를 定립해야 한다. 그리고 實證的研究과 確立된 方法論에 의해 다시 具體的인 問題를 研究하는 相互作用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理論과 實踐間에 合理的인 協力關係를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圖書館學教育에 있어서는 이러한 理論과 實踐과의 相互作用이 充分히 考慮되지 않았으며, 多種多樣한 圖書館으로 부터 抽象的으로 把握한 圖書館像을 研究對象으로하여 一般原理를 끌어낸다고는 하지만 圖書館이라는 特殊한 機關을 根據로 하여 體系의인 學問의 領域이 形成될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많은 疑問點이 있다.

이런 意味에서 情報學을 根據로 하여 圖書館學의 方法的 基礎를 세운다면 重要한 示唆를 얻을 수 있다. 즉 情報學을 ‘機械生物體 및 人間社會에 있어서의 情報作成, 傳達, 改造, 蓄積, 利用에 관한 一般原理를 研究하는 科學’이라 定義한다면 情報의 生産, 蓄積, 檢索, 利用의 4部門이 情報學의 主要한 內容이 된다. 情報學이 이런 內容에 관한 一般原理를 明確히 하는 科學이라면, 情報中에서도 記錄된 情報의 利用現象에 研究의 焦點을 두는 圖書館學은 經濟政策이 經濟學理論을 應用하는 關係에 있듯이 情報의 傳達·利用을 위한 科學, 技術을 뒷받침하는 情報學의 成果에서 그 理論的 基礎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圖書館學은 情報學을 理論的 基礎로 하는 應用科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情報學側面에서의 接近을 強化한다고는 하나 從來 圖書館學이 다루

(28) 慶應大學의 圖書館·情報學理論에 관해서는 本論文에서 이미 引用된 長澤教授의 「圖書館·情報學의 教育」를 중심으로 紹介하고자 한다. 同論文에서 밝힌 理論은 長澤教授個人的 것이라기보다 慶應大學圖書館·情報學科의 總意로 理解되어 두광하다고 생각한다.

어은 內容全部가 情報學的 接近으로 Cover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學問研究의 側面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成果의 社會的 有効性의 探究라는 側面에서 情報學的 立場과 圖書館學的 立場과를 綜合的으로 研究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上述한 「圖書館·情報學」에 있어서의 兩學問의 關係는 Giuliano⁽²⁹⁾가 말한 그것과 흡사하다. 그는 情報學과 圖書館學的 關係를 醫學과 醫療活動에 比喩하여 醫學의 研究가 醫療活動에 必要한 것과 같이 情報科學의 研究가 圖書館業務수행에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하였다.

이들의 見解에 의하면 圖書館學에 있어서 情報學은 重要할 뿐 아니라 中心의인 Core 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兩學問間에 완전한 協力 調和關係를 맺을 수 있음을 意味하고 있다. 慶應大學의 教科課程은 이를 實現한 例라 하겠다.

V. 結 語

以上에서 日本과 우리나라의 圖書館學教育의 推移와 情報學的 導入을 教科課程의 變遷을 통하여 檢討하였다.

우선 結果만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圖書館學教育은 學問의 理論정립에 있어서나 教育目標, 教育內容의 設定, 또는 既存圖書館學과 새로운 情報學과의 關係에 관해서 진지한 檢討가 缺如되었었다는 점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빈번하고도 一貫性이 不足한 教科課程의 改訂을 招來하였었다.

물론 그간에 圖書館學의 本質을 밝히고 體系化를 위한 研究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³⁰⁾ 그러나 이러한 研究를 거쳐 圖書館學이라는 學問이 具體的으로 그 教育實際와 어떻게 連結되어져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뚜렷한 提示가 없었

(29) Giuliano, V. E., The relationship of information Science Librarianship-problems and Scientific traing. *American Documentation*, Vol. 20, No. 4, 1969, p. 344-345.

(30) 鄭曉謨, 圖書館學의 새로운 體系, 中央大學校論文集, 제4집, 1969, p. 65-90.

金正昭, 圖書館學의 體系化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제4집, 1977, p. 91-112.

金正昭, 圖書館學의 學의 性格과 體系化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論集, 제5집, 1978, p. 1-31.

다. 무엇보다도 이들 研究에서는 圖書館學의 領域만을 문제삼고 있으며 이미 敎科課程에 상당히 導入된 情報學分野에 대해서는 거의 言及되어 있지 않다. 圖書館學과 情報學을 一元的으로 研究하여 이들 학문에 관한 理論的 基盤을 再構成하는데까지는 아직 努力이 미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물론 圖書館學敎育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단시간의 考察을 통해서, 또는 어느 한사람의 個人的인 研究成果에 의해 決定할 수는 없는 重要한 問題이다. 學問의 本質에서부터 敎育目標, 敎育內容, 敎科課程의 構成에 이르기까지 國家的인 次元에서의 研究가 必要하다, 이는 各大學의 【特性을 살린 敎育이 必要없다는 뜻이 아니라 學部敎育에 있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學問의 基本根幹(fundamental essence)에 대하여는 國家的인 總意를 획득하는 것이 圖書館學敎育에 必要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努力이 敎授要目的 作成에까지 이어짐으로써, 결핍하면 大學의 講義가 敎授의 私有物化하는 것을 防止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圖書館學이 침어진지 4半世紀가 지나 圖書館學科가 급격히 增加한 지금에도 自他가 ‘比較的 새로운 學問’으로 밖에 認識하고 있지 않은 이 땅에 圖書館學을 定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Comparative Study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Based on analysis of Korean and Japanese curricula—

Kwon Eun-Kyung

<Abstract>

Educational chang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 & IS) at Keio university in Japan, standard of L & IS established by Japanese university educational committee, and trend of library science education in three Korean university were comparatively studied.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investigation, the art of states of L & IS was also considered.

By the influence of American deucation, public library-oriented Japanese curriculum had changed to special library-oriented curriculum. Late 60's information science was introduced to their curriculum, library science which based upon information science theory endeavor to make its own field in applied science as harmonize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w.

Korean library science education begun with university library-oriented curriculum, accepted specia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t almost same time in late 60's. It gave rise to many problems to organized systematic library science.

Consequently, it have needed to harmonize these two fields in near future, reorganize curriculum based on this harmonized knowledge and acquire the consensus about fundarental essence of library science education further.